

고석파 학우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중국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음악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음악이 좋아서 음악공부를 했고 그것을 통해 인생의 보람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95 년 서른이 넘어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고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1998 년 사업차 브라질로 거처를 옮긴 후 출석하기 시작한 교회에서는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브라스 밴드의 지휘까지 맡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23 년 동안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연주활동을 하였으며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로서 자기 기량을 드러내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모든 회중을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교회음악을 더 깊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미션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음악학과에 입학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음악을 다시 공부하지만 누구보다도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접목된 음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실한 예배사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마친 후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음악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